

남원 원도심에 청년문화·창업 공간 조성

시 '남원 빌드-업' 프로젝트

원도심 쇠퇴·청년 유출 막기

청년사업 발굴...참가자 41명 신청

남원지역 청년들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남원 빌드-업(業)'이 추진된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원도심 일대에 조성될 청년문화·창업공간의 운영자,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을 위한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기탐길과 흑대지역자거리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년문화·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남원 빌드-업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기반의 실천형 창업과정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41명이 신청했다.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3일간 청년문화·창업공간으로 조성된 빨간벽돌과 예기탐길 창작공간에서 진행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함께 청년문화·창업공간을 이용할 청년들

이 공간의 디자인 방향과 브랜딩 전략을 마련하는 워크숍도 연다.

2단계에서는 청년문화·창업공간에 입주할 예비청년창업자를 선정해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6주간 사업운영을 위한 실무역량강화 강의와 전문가 집중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빌드-업 프로젝트가 행정의 보조금 지원에 의한 공공형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자립형 청년사업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공간의 활성화와 함께 과거 원도심의 핵심 상권이었던 예기탐길, 흑대지역자거리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서남상의 회원사 4곳 산자부 장관 표창

제48회 상공의 날 표창

내장산복분자법인·세창스틸 등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제48회 상공의 날'을 맞아 회원사 4개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상공의 날'은 매년 경제 성장·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상공인들을 포상하는 행사다.

모범 상공인 분야는 정읍시 북면에 소재한 내장산복분자영농조합법인 최성호 대표이사과 김제 봉황공단에서 공업용 랩(스트레치 필름)을 생산하는 (유)강민케미칼 강희권 대표이사, 부안농공단지에서 공업용 배관 보온 단열제를 만드는 ㈜티엘투 류정우 대표이사과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범 관리자 분야는 정읍 제2공단에 소재한 강관 제조업체인 ㈜세창스틸 김태근 상무가 수



최종필 전북서남상의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조양관', 청년상생공간으로 거듭난다

리모델링 후 11월께 본격 운영

고창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조양관'이 '청년 상생관'으로 거듭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조양관(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325호)이 '청년상생관'으로 바뀐다. 조양관은 1935년 지어져 고창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건축물이자 읍내 유일의 일본식 건축물로 유명했다.

고창군은 기존 조양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비로 리모델링한다. 이후 청년들이 요식업 창업을 도전해볼 수 있는 창업인 큐베이팅 공간과 청년모임 공간으로 꾸며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조양관에서 고창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고창군 예비청년창업자 20여명이 모여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다른 사·군 창업지원공간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청년상생관의 공간, 운영, 창업아이템, 창업교육에 대한 열정 넘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청년상생관은 오는 11월께부터 본격 운영될 예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325호 '고창 조양관'.

정이다. 청년들은 6월부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센터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을 수료한 후 창업공간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 청년은 고창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의식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사업자가 단순한 창업이 아닌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정호 기자 khj@kwangju.co.kr

하루 27명 확진...익산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5일 오후 9시까지 2주간 적용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에서는 지난 10일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난 7일부터 총 4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교회 내 카페 관련 확진자가 17명, 나머지 30명은 감염경로 미상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후 9시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중단된다.

카페와 음식점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

은 정규 예배 등의 모임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도 불가능하다.

익산시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단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부 공공시설도 임시 폐쇄한다. 우선 문화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 합월스포츠센터, 야외공원 체육시설 등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은 폐쇄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휴원에 돌입하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등원 가능하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휴관에 들어간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시 공공앱 '배달의 명수' 출시 1년여만에 매출 100억원 눈앞

주문 건수는 40만2200여건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이하 배명)가 출시 1년여 만에 주문금액 1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배명을 통한 주문 금액은 97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문 건수는 40만2200여건이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 중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13일 출시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배명은 배달 품목을 음식점에서 꽃집, 건강원, 정육점, 떡집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은 1200여개, 가입자는 12만7000명에 달한다.

조만간 로컬푸드와 골목 슈퍼 등으로 배달 품목을 늘릴 예정이어서 가맹점과 가입자, 주문 금액

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시는 매출액 100억원 돌파를 기념한 이벤트도 연다.

100억원을 돌파한 날 주문한 소비자가 800명에게 2000원씩의 할인쿠폰을 주고, 돌파 날짜를 맞춘 소비자가 300명에게는 1만원씩의 할인쿠폰을 준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 사인볼도 증정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랑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 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 '성황대신 사적현판' 3D 촬영 디지털 보관

조선시대에 성황신을 섬기던 기록을 적은 목판인 '순창 성황대신 사적현판'(민속문화재 제238호)이 3차원(3D) 기술로 촬영돼 디지털 자료로 보관된다.

순창군은 성황대신 사적현판의 3D 스캔 기록화 사업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황대신 사적현판은 가로 180cm, 세로 54cm로 1743년 제작됐으며, 이두 및 한자 1600여자로 성황제 현판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현판 글자 일부가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거나 훼손돼, 순창군은 3D 레이저 스캐너로 현판을 세밀하게 찍어 디지털 자료로 보관할 방침이다. 디지털 탁본 자료를 토대로 현판 내용



순창군 금과면 평산재의 성황대신사적 현판.

을 정확히 번역 분석하고 가치를 재확인해 국가 보물 승격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임, 담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p>관내본점</p>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p> <p>매곡지점 572-4150</p>
<p>침단지점</p> <p>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p> <p>동광주지점 264-4150</p>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